▲본회 최상백 회장

- 홍 보 부 -

한껏 드높은 하늘과 한껏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본회는 임원, 지부(회)장 및 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인들의 대화합을 이룬 제18차 임직원 연수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5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이날 연수회는 양돈업계의 비중있는 인사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신용협동조합 연수원에서 열렸으며, 이번 행사는 입소식에 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게 따로 개최하지 않았던 본회 제13차 최상백 회장의 취임식 또한 함께 치뤄져 더욱 행사를 빛나게 하였다.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근래의 IMF체제하의 사료값 폭등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양돈인들의 위안과 전체 양돈인들의 대화의 장이 되었다.

정부의 축정시책, 경제위기의 경영전략 교육 실시

개회사를 통해 본회 최상백 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양돈인들이 단합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자"는 말을 연수생들에게 전달하였다.

뒤이어, 농림부 이관용 축산국장을 대신해 정부의 축산정책시책을 설명한 농림부 이재용 사무관은 먼저 양돈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양돈분야는 돼지 유통구조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가격불안정 해소 문제, 돼지고기 수출기반 마련 문제등이 정부정책의 과제라고 밝혔다.

'98년 올해에는 종래 추진해온 경쟁력 강화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지만, 자금제약으로 운영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어 신규 시설투자는 줄인다는 기본적인 방침하에, 농가 및 육가공업체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내수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유통·위생단계에서의 제도정비 및 지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회 회원들은 이재용 사무관에 질의를 통해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해 줄 것 ▲올바른 규격돈 생산시 180일령에 110kg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료회사들은 140일령에 110kg에

▲조금씩 비가 내리는 속에 신협연수원 식당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정부의 축정시책에 관해 강의하는 농림부 이재용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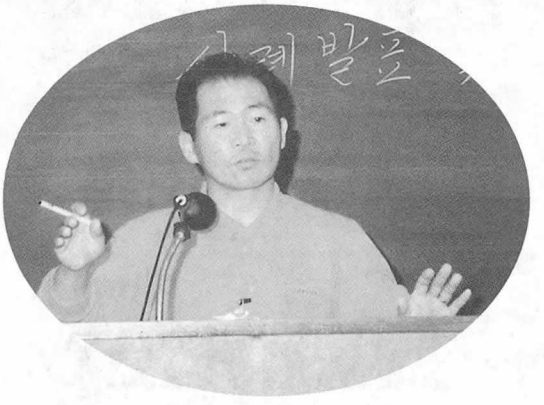
▲경제위기의 산업경영전략을 강의하는 매일경제신문 장창환 논설위원

도달한다고 광고하므로 이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과대광고를 피해줄 것 ▲분뇨처리에 있어 액비화 허가농장과 퇴비화 허가농장이 구분돼 있어 분뇨처리에 유동성이 없는 점 등의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재용 사무관은 답변을 통해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시작된 두번째 강의는 매일경제신문 장창환 논설위원이 경제위기와 산업경영전략에 관해 두시간에 걸쳐 열강을 하였다.

그의 강의내용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의 정경유착에 따른 재벌위주의 경제가 지금의 IMF상황을 초래하였으며 현재는 구조개선의 시작도 안된 상태이며, '조금만 있으면 예전처럼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한다는 점을 이

오랜만에 서로만나 반가운 악수를 하는 모습은
한 배를 탄 양돈인들이 모두 한 가족이란 것을 다시한번
실감나게 하였다.



▲주문배합사료에 관한 발표를 하는 본회 김건태 부회장 (홍성지부장)

야기 했다.

또한, 그는 정리하는 말을 통해 IMF는 앞으로 100여년 동안의 구조조정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며 현재의 모습을 희망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무리 했다.

더 없이 유익하고 알찬 정보교환의 기회 가져

점심식사 이후 계속 진행되었던 입소식과 연수생 교육은 오후 6시에 끝을 내었고, 푸짐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상호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첫날 일과를 마쳤다. 둘째날은 아침식사 이후 외부의 강사를 따로 초대하지 않고 협회내의 우수지부와 사료자가배합 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서로서로 더 없이 유익하고 알찬 정보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본회 최상백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건태 감사는 주문배합사료의 실제적인 운영사례를 설명하면서 주문배합사료는 구성원들의 올바른 자세와, 단순한 가격보다는 품질의 질을 생각해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주문배합사료를 실시할 경우 사료비의 25~30%, 전체 생산비의 20%정도는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현재 50%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다고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또한 본회 여주지부 윤상익 지부장은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방역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써 군과 방역단의 관계가 원활해야 하는 점, 생석회의 이용효과가 큰 점 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뒤이어 본회 안양·시흥 지부장으로 있는 김동환 지부장은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관해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남은 음식물을 액상급이할 경우의 잇점과, 시설투자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IMF상황으로 영양가가 하락한 점, 안전성이 검증 안된 점, 시설과다 설치시의 문제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에 관한 발표를 하는 본회 윤상익 여주지부장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관한 발표를 하는 본회 김동환 안양·시흥지부장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5~10년을 내다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과, 매스컴의 과대광고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례발표 및 회의의 마지막으로 연수생들은 이봉우 거창지부장의 선창으로 ▲IMF의 한파속에서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에 힘쓸 것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각오로 거품제거에 힘쓸 것 ▲지역환경 개선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뜰한 가축분뇨 처리에 힘쓸 것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양돈인의 권익신장에 솔선수범할 것 등 4개항을 결의함으로써 본회 '98 임직원 연수회는 짜여진 일정이 모두 마쳐 졌으며, 연수회에 참가한 모든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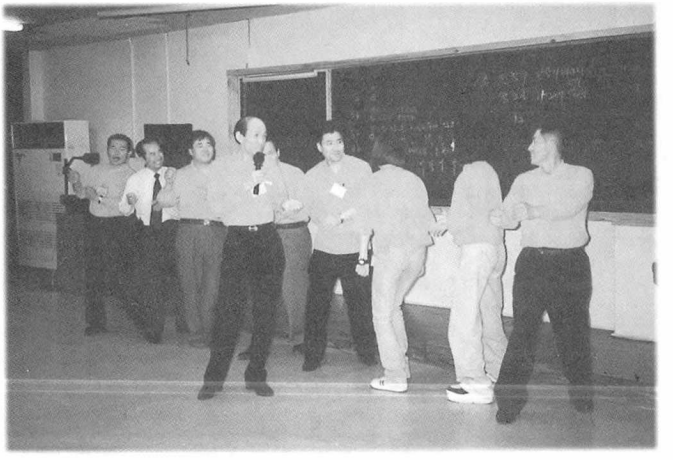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회원친목의 밤'

이번 연수회에서는 첫날 저녁식사 후에 가진 '회원친목의 밤'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모습으로 진행되어 기억에 남는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연수회가 되었다.

직위와 어깨의 짐을 떨쳐버리고 이날 밤 만큼은 더 할 나위없이 서로서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서로를 웃음짓게 했으며,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인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허물없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양돈인 대화합의 장이 따로 없는 듯 하였다.

두시간에 걸친 친목의 순서가 다 지나갔을 때에는 모두 두손을 들어 노래부르며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했고, 한껏 무너져내린 마음의 벽을 계기로 끼리끼리 두런두런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번 '98 임직원 연수회는 이전보다는 꽉 짜여진 일정표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서로서로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도록 배려하였으며, 연수생 교육내용 또한 지금의 상황에 꼭 필요한 주제를 선별하여 양돈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날 가진 사례발표 및 회의는 시종일관 연수회 내내 보지못한 진지한 모습으로, 약간은 시끌벅적하게 옆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다가도 한 사람이 발표할 때는 조용히 경청하는 진정 회의다운 회의모습을 보였다.

여러모로 유익했던 5월 6, 7일 양일간의 연수회는 마지막으로 조금씩 내리는 빗속에서 기념촬영으로 마쳐졌으며, 국내 양돈인들의 주축이라는 자부심과 의무감을 안고 연수생들은 아쉬움의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다. 養豚